미국의 세균전만행을 고발한다

평양출판사
2015. 6.

화첩을 내면서

생물병원체를 리용한 세균무기는 전인류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멸살시킬수 있는 극히 위험한 대량살륙무기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1899년 《헤그륙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 1925년 《제네바의정서》, 197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등의 금지와 이들 무기의 페기에 관한 조약》 등에는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방법을 전쟁에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법과 조약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세균전준비를 극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세균전을 통한 전대미문의 인간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16년에 이미 세균전에 써먹을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미국은 1940년대초부터 세균무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처형하게 되여있는 전 일본군 731부대와 100부대의 이시이 시로와 와까마쯔 지로를 비롯한 세균전범자들과 연구자료들을 빼돌려 세균무기연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파쑈도이췰란드의 왈테르를 비롯한 세균전범자들과 설비, 자료를 통채로 가져다 세균무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써먹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자료들과 또 얼마전 미국의 인터네트매체 《디쎈터》가 공개한 영국의 이름난 생화학자였던 죠지프 니덤이 1952년에 주도적으로 작성한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의 사실조사보고서》(일명 니덤보고서)원문이 여실히 증빙해주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군사적패배를 거듭하는 저들의 수치를 만회하고 비밀리에 연구해오던 세균무기를 실전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며 세균전경험자들을 더 많이 길러낼 목적밑에 1950년 가을부터 세균전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세균전모략과 세균무기위력검토, 본격적인 세균전준비기를 거쳐 전면적인 세균무기투하단계, 세균오염지대형성단계, 중요교두보를 세균오염지대로 만들기 위한 단계 등 여러 단계로 된 본격적이고 대량적인 세균전을 벌리였으며 하여 조선은 미국의 세균전시험장으로 변하였다.

미국은 1950년 12월초 공화국북반부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가면서 평양시,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등 여러 지역들에 수많은 전염병균들을 음흉한 방법으로 전파시키였다.

미국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미국이 사용한 세균무기의 종류로서는 악성, 급성, 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하여 비탈저, 장티브스, 파라티브스(A, B), 적리, 발진티브스, 살모넬라, 식물의 탄저병 등 20여종에 달하고 세균에 감염시켜 떨어뜨린 곤충과 동물들로서는 파리(5종), 모기(3종), 벼룩, 빈대, 쥐를 비롯하여 무려 34종이상에 달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야만적인 세균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전쟁 전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100여만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전쟁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숨졌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적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 포로들을 세균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민주녀성련맹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세계의 진보적과학자들로 무어진 권위있는 조사단들은 1951년과 1952년에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보고 조사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세균전범죄를 고발하는 기사들과 보고서, 공보, 호소문, 항의편지 등을 세계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에 발표하여 미국의 정체를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감행한 미국의 극악한 세균전범죄는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삼천리강토를 황페화시키고 전체 조선민족을 멸살시킬 흉심밑에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세균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남조선인민들을 인체실험대상으로 삼으면서까지 세균무기연구에 혈안이 되여왔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들여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엄연한 진실을 외곡하다 못해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개발과 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전쟁도발자, 세균전범자로서의 저들의 정체와 죄악을 흑막속에 덮어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류도덕과 국제법의 란폭한 유린자,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으며 조선민족과 세계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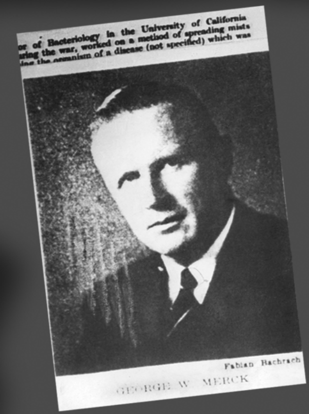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균무기를 연구하고 생산한 인류도덕과 국제공약의 란폭한 위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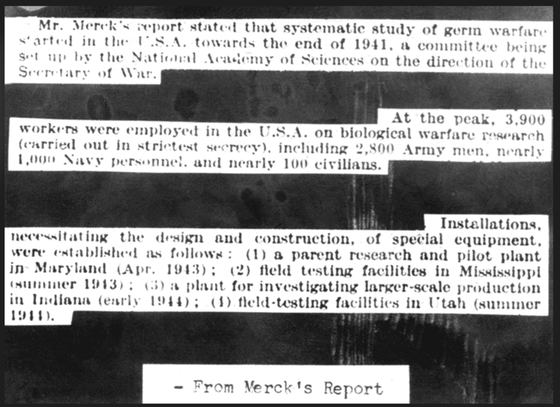


미국의 세균무기연구의 중심지였던 메릴랜드주의 데트릭세균무기연구 및 생산공장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세균전만행에 직접 참가하였다가 포로된 미공군대좌 워커. 엠. 마흐린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한 후 나는 공군장관 대리보좌관에 임명되였다. … 나의 상관 릴대좌는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대장과 공군참모장 반덴버그대장, 륙군참모장 콜린스대장, 해군작전부장 셔만제독과 같은 고급군사가들이 세균무기가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일반무기분야에 속할만큼 발전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 나는 1950년 11월 중순경 메릴랜드주 프레데리크에 있는 데트릭기지로 갔다. … 그 당시 연구소에서는 전략폭격기로 세균을 수송할 폭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었다. …》




Mr. Merck's report stated that systematic study of germ warfare started in the U.S.A. towards the end of 1941, a committee being set up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n the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War.

At the peak, 3,900 workers were employed in the U.S.A. on biological warfare research (carried out in strictest secrecy), including 2,800 Army men, nearly 1,000 Navy personnel, and nearly 100 civilians.

Installations, necessitat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pecial equipment, were established as follows: (1) a parent research and pilot plant in Maryland (Apr. 1943); (2) field testing facilities in Mississippi (summer 1943); (3) a plant for investigating larger-scale production in Indiana (early 1944); (4) field-testing facilities in Utah (summer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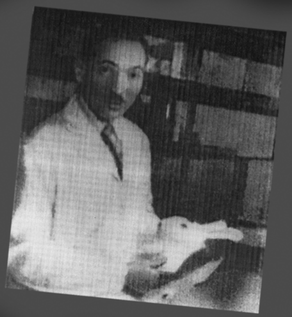
- From Merck'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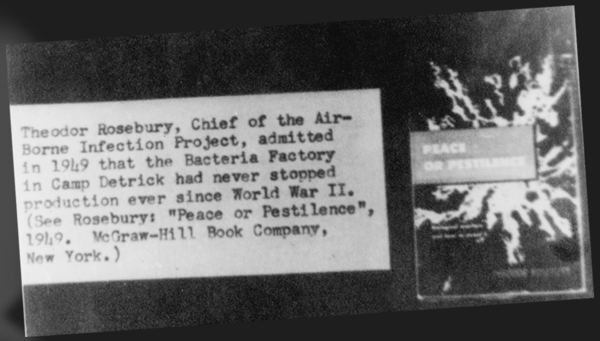
미국 세균무기연구위원회 위원장 죠지 웨 메르크와 그가 미국의 세균전준비가 1940년대초부터 진행된 사실을 밝힌 보고서내용의 일부

미국 세균무기연구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캘리포니아종합대학 세균학 교수, 박사 메르크가 당시 미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 미국에서 세균무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1941년말경에 시작되였으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과학원에 그 협회를 설립하고있다. … 미국은 여기에 3 800여명의 군인, 약 100명의 일반고용자를 포함하여 도합 3 900여명의 연구사들을 망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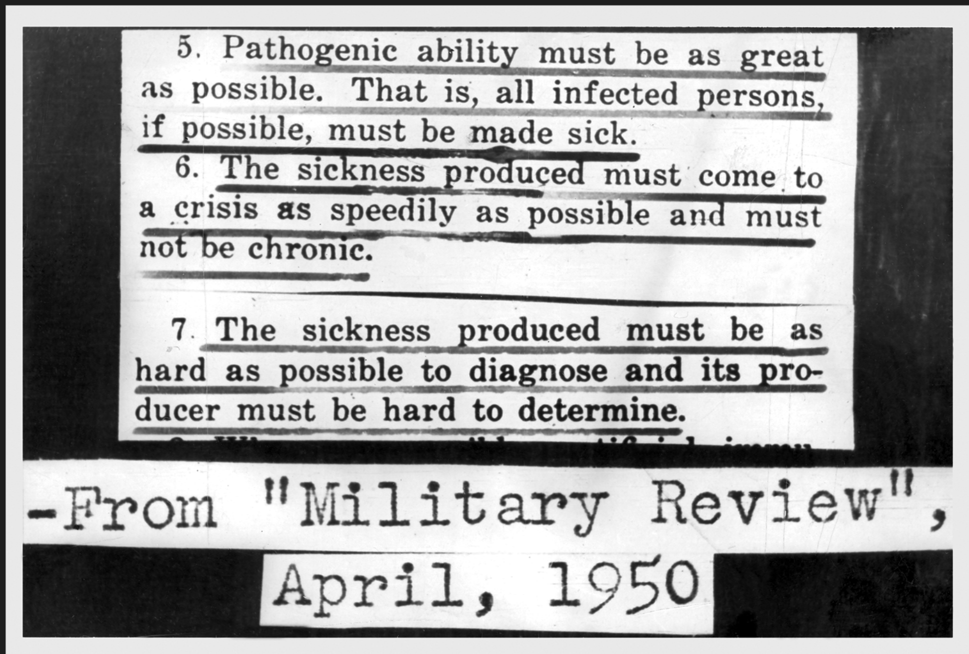
특수한 설비를 갖춘 구조물과 설계에 필요한 설비들이 다음과 같이 구축되였다.

1. 메릴랜드의 명백한 연구 및 방조시설(1943. 4.)
2. 미씨씨피의 지역검사실(1943년 여름)
3. 인디아나의 대규모생산을 연구하는 시설(1944년초)
4. 유타주의 지역검사시설(1944년 여름) … 》라고 지적되여있다.




Theodor Rosebury, Chief of the Air-Borne Infection Project, admitted in 1949 that the Bacteria Factory in Camp Detrick had never stopped production ever since World War II. (See Rosebury: "Peace or Pestilence", 1949.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미국의 세균전범자 헤오더 로즈베리와 그가 데트릭세균공장이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생산을 중단한적이 없었다는것을 인정한 자료


5. Pathogenic ability must be as great as possible. That is, all infected persons, if possible, must be made sick.
6. The sickness produced must come to a crisis as speedily as possible and must not be chronic.

7. The sickness produced must be as hard as possible to diagnose and its producer must be hard to determine.

-From "Military Review", April, 1950

미국방성 군사검열부에서 세균무기생산자들에게 하달한 지시내용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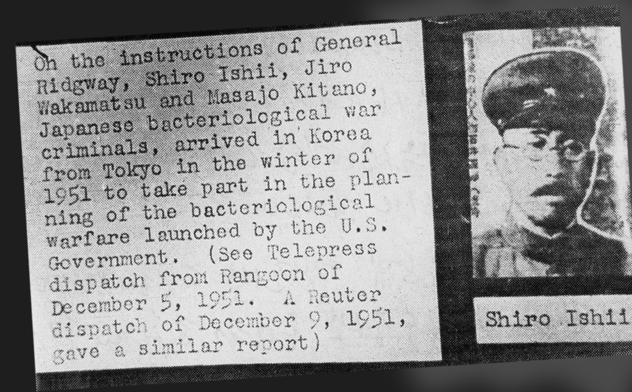
미국방성 군사검열부에서는 1950년 4월 세균무기연구 및 생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

5) 병원력이 될수록 세야 한다. 즉 감염된 사람은 모두 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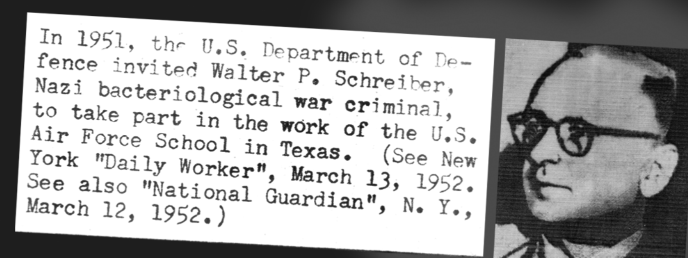
6) 발생한 병은 될수록 빨리 심하게 경과해야 하며 만성적으로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

7) 발생한 병은 진단하기 힘들어야 하며 발생원인을 결정하기 힘들어야 한다.》


On the instructions of General Ridgway, Shiro Ishii, Jiro Wakamatsu and Masajo Kitano, Japanese bacteriological war criminals, arrived in Korea from Tokyo in the winter of 1951 to take part in the planning of the bacteriological warfare launched by the U.S. Government. (See Telepress dispatch from Rangoon of December 5, 1951. A Reuter dispatch of December 9, 1951, gave a similar report)

전 일본군 세균무기전범자들인 이시이 시로, 와까마쯔 지로, 기따노마 사조가 미국의 세균전계획작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1951년 겨울에 도꾜를 떠나 조선에 도착한 소식을 전한 1951년 12월 5일 양곤발 텔레프레스통신과 1951년 12월 9일 로이터통신 보도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숀》은 2010년 3월 19일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세균무기개발에 일제의 악명높은 731부대의 전범자들을 고용하였다. …》라고 폭로하였으며 일본군에 의한 《세균전의 력사적사실을 밝히는 회》대표이며 일본 시즈오까대학 강사 모리마 사다끼는 조선전쟁시기 미군 세균전피해실태를 조사한 후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에 의한 세균전은 구일본군 731부대의 연구성과를 계승하여 이루어졌다. … 미국은 일본 731부대가 연구한 자료들을 아시아에서의 전쟁준비를 위해 장악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균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폭로하였다.


In 1951, the U.S. Department of Defence invited Walter P. Schreiber, Nazi bacteriological war criminal, to take part in the work of the U.S. Air Force School in Texas. (See New York "Daily Worker", March 13, 1952. See also "National Guardian", N. Y., March 12,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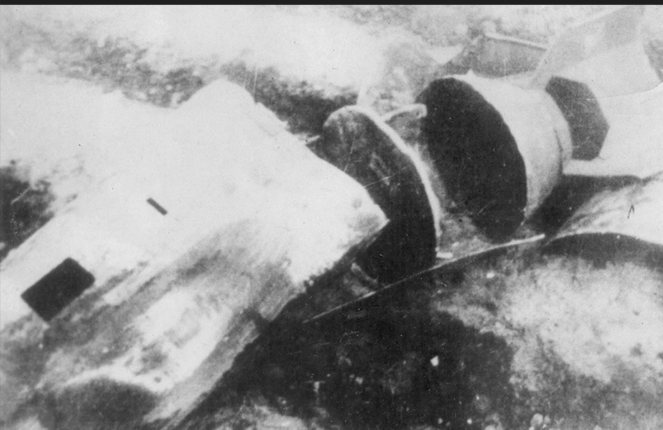
미국에 고용된 파쑈도이췰란드의 세균전범자 왈데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파쑈도이췰란드의 왈테르를 비롯한 세균전범자 600여명과 설비, 기구, 연구자료들을 특수군용함선으로 실어다 제놈들의 세균전만행에 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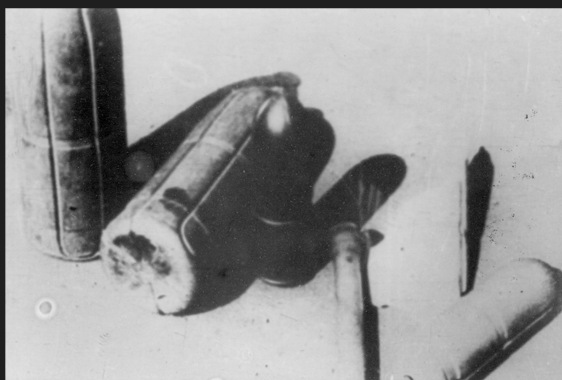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나쑈날 가디언》 1952년 3월 12일부와 뉴욕 《데일리 워커》 1952년 3월 13일부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 1951년 미국방성은 텍사스에 있는 공군대학에 파쑈도이췰란드의 세균전범자인 왈테르 피 스라이베를 초청하여 세균무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사용한 세균탄들



◀ 미군이 1952년 3월 14일 함경남도 단천군(당시)에 투하한 4칸짜리 세균탄 잔해



▲ 미군이 1952년 1월 28일 강원도 이천군 동남지구에 떨군 전 일본군 731부대의 《이시이식도자기세균탄》

《이시이식도자기세균탄》은 일본왕의 비밀칙령에 의하여 1935년 만주 할빈지구에 《관동군급수부》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731부대의 부대장 이시이 시로의 지휘하에 만든 세균탄이다.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이시이식도자기세균탄》을 강원도 이천, 김화, 평강, 철원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수많이 투하하였다.



미군이 1952년 2월 28일 평양시 강동군에 떨군 락하산이 달린 종이세균탄

종이세균탄은 1952년 1월에 일본 《마이니찌신붕》에 게재된 사가끼의 론설에 자세히 설명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탄은 질긴 종이를 재질로 하여 몇개의 칸으로 되여있고 뢰관이 있다. 뢰관은 필요한 시간에 종이용기를 태워버리기 위한것이다. 이 탄은 지면에 닿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감염된 매개체가 나오게 되였는데 그때로부터 얼마 있다가 종이탄체는 연소되여 아무러한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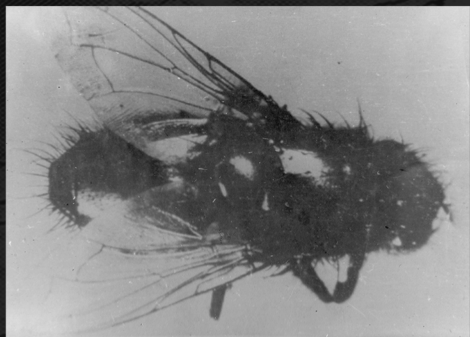


▶ 미군이 1951년 3월 13일 황해북도 개풍군 삼구리(당시)에 포로 발사한 종이세균탄 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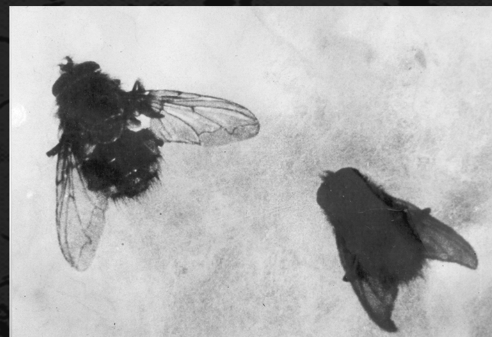


미군이 1952년 3월 5일 평양시 중심부의 도로에 투하한 세균탄파편들과 산포된 곤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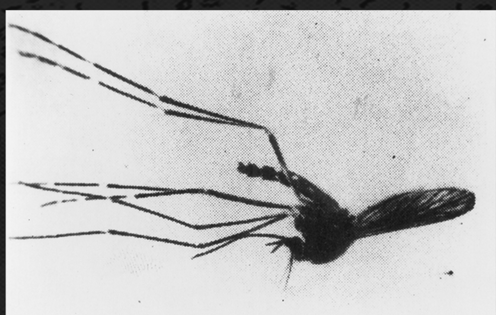
미국이 세균전에 리용한 매개체와 세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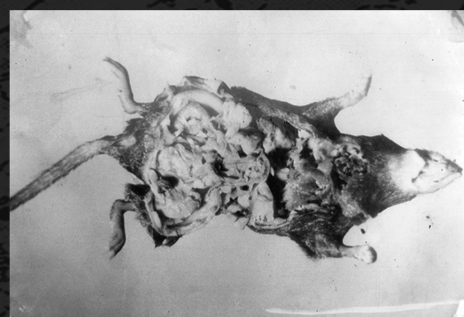
미군이 1952년 3월 5일 평양시 중구역 남문리(당시)에 떨군 청쉬파리(아메리카북부에서 사는 파리종류)



미군이 1952년 3월 강원도 이천군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파리



미군이 1952년 2월 11일 강원도 철원군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알락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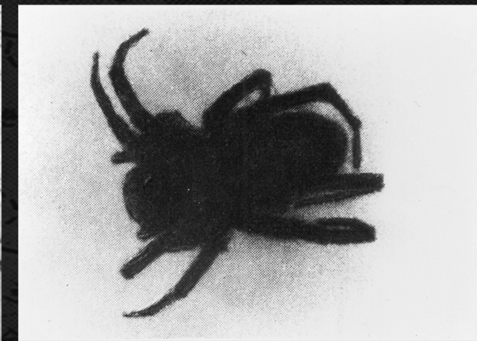
미군이 1952년 3월 평안남도 강서군에 페스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쥐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세균전의 1단계인 195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세균무기의 전면적인 투하작전을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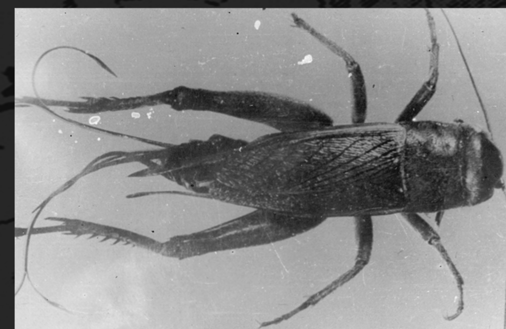
이 기간에 20여종의 세균곤충을 비롯한 수많은 매개체들에 페스트, 콜레라, 장티브스, 탄저균 등 10여종의 악성전염병균을 감염시켜 3~4일간격으로 우리 나라의 전 지역에 련속 퍼부음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을 멸살시키려 하였으며 오염지대를 형성하여 전선과 후방과의 련계를 끊어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군이 1952년 3월 10일 평안남도 양덕군 사천리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개구리



미군이 1952년 2월 25일 평안남도 개천시에 세균을 주입시켜 떨군 거미



미군이 1952년 2월 29일 황해북도 수안군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귀뚜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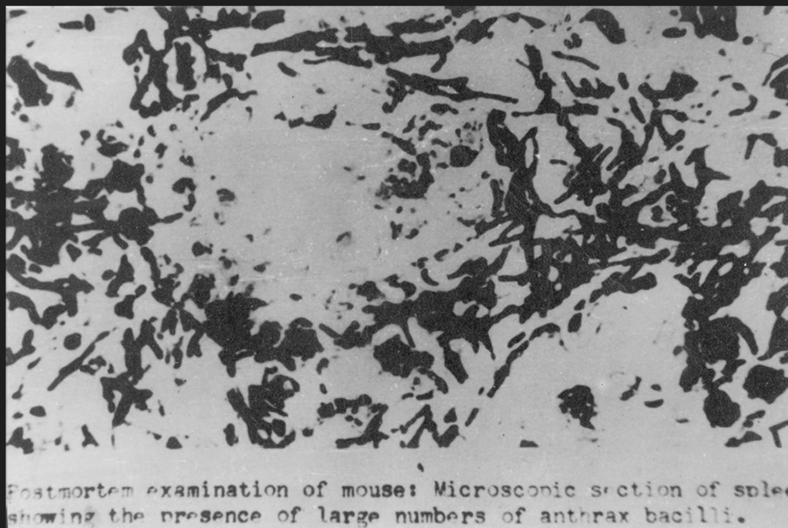
미군이 1952년 3월 평안남도 평원군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물고기



미군이 1952년 3월 11일 평안북도 벽동군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고무뱀(손에 쥐고 약간만 힘을 주어도 세균, 곤충들이 튀여나오게 고무로 만들었다.)



미군이 1952년 3월초 평안남도 양덕군 송전리일대에 세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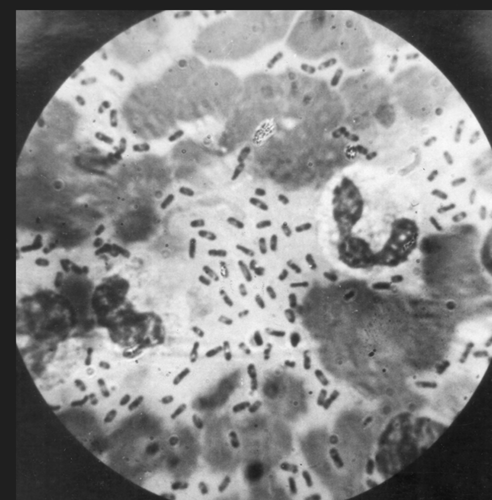
미군이 투하한 쥐의 비장에서 나타난 탄저균



미군이 탄저균을 주입시켜 투하한 쥐에 의하여 페문부의 출혈성림파선염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부검자료



미군이 투하한 매개물에서 분리한 페스트균을 모르모트에게 주입시킨 결과 간장과 비장이 커지고 충혈된 모르모트의 부검자료





미군이 투하한 세균무기에 의하여 사망한 한 주민의 시체에서 분리한 페스트균

미국의 세균전만행에 의한 피해참상

미국의 세균전만행에 의하여 숨진 무고한 인민들





미국의 세균전만행으로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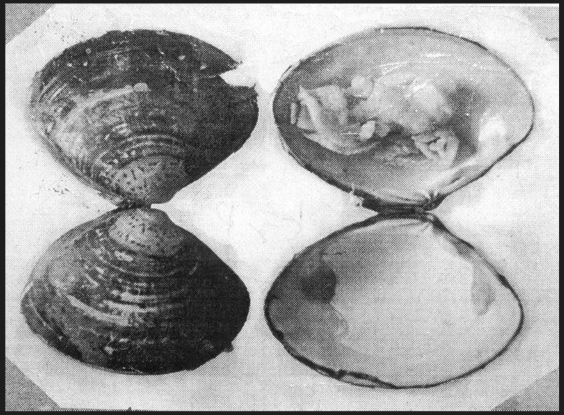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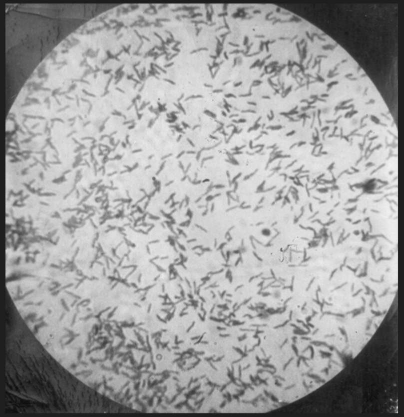




미군이 1952년 5월 평안남도 대동군에 콜레라균을 주입시켜 떨군 조개를 생것으로 먹고 사망한 주민 조만복



미군이 1952년 5월 평안남도 대동군에 콜레라균을 주입시켜 떨군 조개



미군이 1952년 5월 평안남도 대동군에 떨군 조개를 생것으로 먹고 사망한 주민 조만복의 대변에서 분리한 콜레라균

국제과학자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대동사건(콜레라)》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사단이 큰 주의를 돌린 사건중의 하나는 1952년 5월에 어떤 농촌에서 일어난 비참한 콜레라발생이였다. 마치 비행사가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듯이 약 1시간동안 선회하고 가버린 후 밤이 지난 그 이튿날 아침 한 농촌부녀가 산언덕에서 나물을 캐다가 짚뭉치를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는 조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을 집에 가져다 자기 남편과 같이 생것으로 먹었다. 그날 저녁때 그들은 위독하게 발병하여 그 다음날 저녁때에 다 사망하였다.

그후 방역대들은 그 산언덕에서 조개가 들어있는 다른 짚뭉치들을 발견하였다.

… 전문가들이 실시한 세균검사에서 이 조개들은 콜레라균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 최근 40년동안의 콜레라발생은 언제나 항구도시를 통하여 병이 침습하군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대로 콜레라의 근원지와는 떨어진 농촌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한세기동안을 거쳐서 5월에 콜레라가 발생한 일은 다만 한번뿐이고 8월이전에도 매우 드물었다.

메레트리스종으로 확인된 이 조개에 대하여 몇가지 특이한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전쟁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개는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 조개를 싼 짚뭉치는 보통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보다 1개월 빠르게 산언덕에서 발견되였다.

3. 조선에서는 판매할 때에 이 조개를 짚에다 싸는 법이 없다.

4. 조개를 투하할 때 땅에 심하게 부딪쳤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조개껍질이 깨여졌기때문에)

… 이리하여 이 젊은 소박한 부부는 세균을 매개하려고 의도하는 이 조개를 부주의하게 먹고 죽은것이다.》

미국의 세균전범죄자들의 진술자료



세균무기를 투하하다가 포로된 미해군륙전대 1공군련대 참모장 프랑크 에취 쉐버의 진술장면

미제의 세균전만행에 직접 참가하였다가 포로된 미제침략군 해군륙전대 1공군련대 참모장 프랑크 에취 쉐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조선에서의 세균전계획은 미합동참모부에서 1951년 10월에 지시한것이다. 합동참모부는 그때 사람을 직접 파견하여 극동군사령관(당시 릿지웨이)에게 조선에서 세균전을 시작하되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점점 확대할것을 명령하였다. 이 지시는 미극동군공군사령관 웨이란드에게 전달되였다. 그리하여 웨이란드는 조선에 있는 5공군사령관 에베레스와 미극동군공군의 직접 지휘하에 있는 오끼나와의 19폭격기련대장을 직접 불러 작전하였다. … 에베레스는 직접 구두로 조선에 있는 부대들에 명령하였다.

그것은 문건으로 주면 로획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공군중위 죤 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미국 항공중위 죤 퀸이며 군호는 17993a, 나이 29살, 캘리포니아주사람이다.

… 1951년 12월 1일에 조선 군산에 파견되였다. 나는 3폭격기련대 3대대 8중대에 배속되여 <B-29>형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였다. 나는 1952년 1월 13일에 비행기가 격추되여 순안서남 10mile지점에서 포로되였다.

…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앞에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되였다. 나는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조선인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을 뼈저리게 뉘우친다.

… 1951년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나는 처음으로 세균전강의를 받았다. … 청강생들로는 20명의 조종사와 항법사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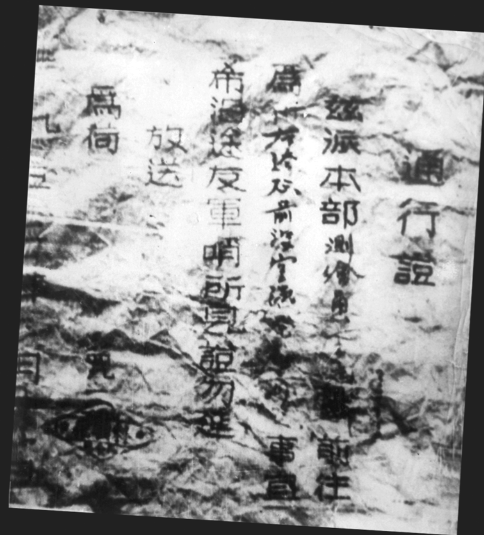
1952년 1월 3일 비행직전에 작전과 레노즈대위는 나에게 평양동남방향에 폭발하지 않는 폭탄 4개를 투하할 임무를 주었다.

… 나는 2시 25분에 출발하여 3시 30분에 평양에서 남쪽으로 5mile정도 떨어져있는 대도로의 큰 다리로부터 동쪽방향 3mile지점에 두개의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세균전만행에 직접 참가한 미공군조종사 죤 퀸이 자백서를 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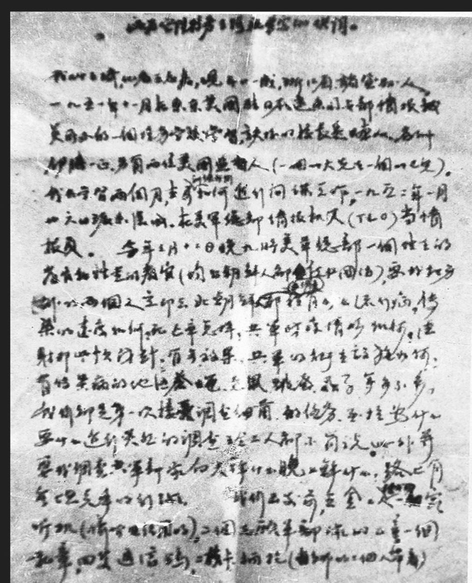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가장하고 침투하였다가 체포된 미국의 고용간첩 왕기와 그가 지참하였던 통행증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가장하고 침투하였다가 체포된 미국의 고용간첩 왕기는 다음과 같이 자백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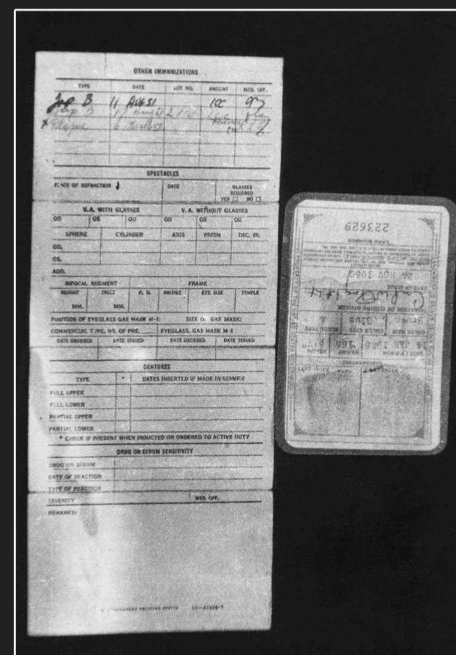
나는 1952년 1월 26일 유엔군사령부 정보기관(TLO)의 정보원으로 되였습니다. … 그들이 준 중요임무는 즉시 북조선에 들어가서 공산군부대의 배치정형과 전염병이 전파되는 속도와 사망률, 공산군의 반세균시설들과 방역대책은 어떤가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파리, 쥐, 벼룩 등의 살포상태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탐지하여 보고하는것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간첩 왕기의 자백서



미국의 세균전효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침투되였다가 체포된 간첩들



미국이 산 사람에게 세균무기실험을 하면서 리용한 접종카드

미국의 AP통신은 《경상남도 통영군 거제도에 있는 미보병 1091부대에 소속된 … 함선들에는 세균배양기들과 현미경, 멸균기, 랭장고, 종류수기들과 실험자들에게 필요한 기타의 기구들로 완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연구소가 설치되여있다.

… 이 선박들에는 거제도수용소에서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매일 3 000여회에 달하는 실험이 실시되고있으며 38명의 미군세균학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있다. … 》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세균전 제2기 제4단계에서 우리측 포로들을 귀환시키면서 말라리아예방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적리균이나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전염병균을 먹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도 고대하던 고향의 부모처자도 만나지 못하고 숨지게 하였다.

미국의 야만적인 세균전만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하고있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성원들(1952년 3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은 1952년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의 사이에 미제의 세균무기에 의하여 피해받은 현장을 조사하고 100명이상의 증인들을 만나 확인한 다음 본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였다.

《… 지금까지 조선에서 보지 못한 파리와 기타 곤충들이 지난 수주일동안 많은 지방에서 발견되였으며 이것이 발견된 환경 즉 기온상태, 곤충이 한군데 뭉쳐있는 현상, 지면상태, 기타 모든 점과 비행기가 순회한 후에 곤충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상태, 용기의 유물을 발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곤충들이 공중으로부터 투하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전문가들은 이 곤충의 대부분이 호열자, 티브스, 페스트 및 기타의 병균으로 감염되였다는것을 확인하였다.

호열자와 페스트는 이러한 곤충들이 발견된지 수일내에 곤충들이 투하된 장소와 그 부근에서 발생하였던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직접 확인한 우리는 무한히 분개하였으며 이 사실들을 더 론할수 없는 명백한것이라고 생각한다.》

폴리씨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평화리사회조사단은 1952년 5월부터 미국의 세균전만행이 감행된 현장들과 전시장들을 참관하고 목격자들을 만났으며 직접 실험검사도 진행하였다.

이 활동내용에 근거하여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쥴리오 큐리는 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호소문(1952년)을 발표하였다.

《… 1월 28일부터 2월 17일사이에 미군용기는 조선에서 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페스트, 콜레라, 티브스 및 그밖의 무서운 전염병균을 산포하였다.

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감행되였다.

세균무기의 사용은 국제협약의 또 하나의 란폭한 위반인것이다.

… 대량학살무기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스톡홀름호소문을 지지한 6억의 남녀들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한 이러한 살인행동의 재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뚜렷이 표명하였다.

오늘날 인민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만행과 그에 사용되는 놀랄만 한 수단들을 명백히 알게 되였다.

세계여론은 미국의 범죄행동을 반대하여야 할것이다.》



미군이 리용한 세균탄잔해들을 확인하는 세계평화리사회조사단 성원



미국의 세균무기에 의한 피해현장을 조사확인하는 국제과학자조사단 성원들

국제과학자조사단은 1952년 3월 29일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평화리사회 뷰로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리기영이 제출한 미제의 세균전만행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인도주의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독자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과학자조사단을 조선에 파견하도록 할데 대한 결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왔다.

조사단은 1952년 7월 28일부터 2개월간 활동하면서 현장조사와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통하여 미제의 세균전만행에 리용된 매개물과 균들에 대한 과학적론거들을 밝히였다.

이에 기초하여 국제과학자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바로 세균무기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 세균무기는 미군부대들이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것인바 그중 몇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일본군대가 사용한 방법을 발전시킨것으로 생각한다. 본 조사단은 과학적인 론거에 따라 확인하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조사단은 증거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였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세균무기를 사용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며 과학기술발전성과들이 인간을 학살하는데 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세균전만행에 대처하여 1952년초 조선과 중국의 전문가들로 조선-중국 국제과학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전염병학전문가 김배준을 단장으로 하고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 방실을 부단장으로 하는 24명의 조중전문가 및 기자공동조사단이 조직되여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세균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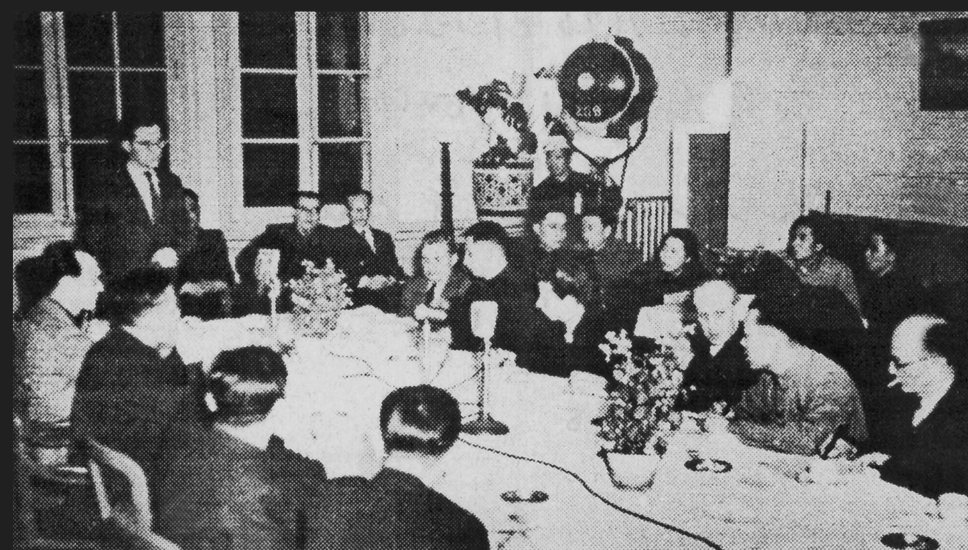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에 왔던 국제과학자조사단은 이에 대하여 자기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952년초부터 조선과 중국에서 일어난 비정상적현상은 량국 인민들과 정부로 하여금 조선과 중국이 미국의 세균무기대상으로 되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조사단은 모든 조선의 세균학자들과 기타 조선전문가들이 자기의 임무에 무한한 헌신성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는바이다.

조사단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조선의 우수한 8명의 세균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사단은 역시 조선방역대에 협조를 주기 위하여 파견된 중국의 우수한 전문가들의 희생적인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1952년 4월 1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세균전을 감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국제조사단 성원들

오늘도 지속되는 미국의 세균전범죄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표본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사한데 의하면 미국은 1998년 전세계 미군기지중 최초로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춘 이후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생물학무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관련물질을 정기적으로 대량 반입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였다.

이로 하여 지난 조선전쟁이후에도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남조선을 세균실험기지로, 남조선인민들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고 세균무기개발을 지속적으로 벌려온 미국의 만행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제반 사실들은 우리 민족에게 세기를 이어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국이야말로 마땅히 국제전범재판정에서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반인륜적, 비인도주의적 특대형범죄자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충격보고 | 미국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뉴욕 지하철, 워싱턴 공항에서 세균전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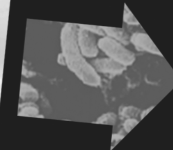
'공포의 균' 탄저 미국이 키웠다

'경계 1호' 생물 무기들

오늘도 지속되는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폭로한 남조선출판물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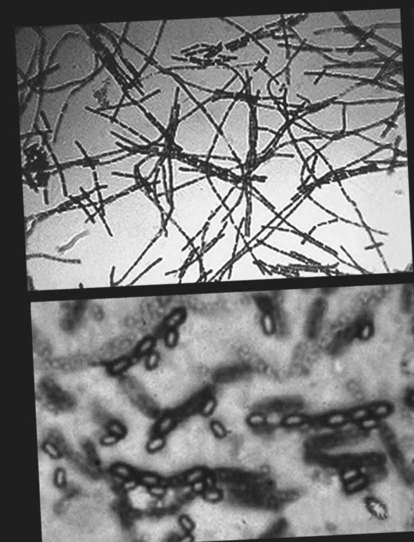


미국 유타주의 《더그웨이 프루빙 그라운드》 미군연구소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있는 미국인연구사

최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활성탄저균이 발송된 사건이 공개된 후 지난 5월 28일 AP통신은 《탄저균표본을 발송한 군연구소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서쪽 140㎞ 떨어진 <더그웨이 프루빙 그라운드>로 1942년 설립이후 70년이상 생화학무기 및 방어실험을 해온 곳이다. 1968년 3월 이 연구소에서 48㎞ 떨어진 스컬밸리에서 양 6 249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원인은 유기인산화합물중독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소는 2차세계대전때 독성물질과 생화학무기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다 전쟁이 끝나면서 46년부터 활동이 정지되였다. 6.25전쟁때 다시 활성화된 뒤 54년 미륙군성의 정식 기관으로 편입되였다. 솔트레이크사막내 3면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3 243㎢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죽음을 원쑤에게

…

야수들은 우리 땅을 불사른다
야수들은 우리 인민을 도살한다
조선이란 나라를 세상에서 없애련다
조선사람이란 민족을 멸살하련다
그러나 안된다
오! 안된다!



…

성스런 보복의 불길이여
활활 타오르라!
탄환을 재우라!
쏘라!
총창을 겨누라!
찌르라!

…

죽음을 주라!
원쑤에게 죽음을!
죽음을!

(조기천의 시 《죽음을 원쑤에게》 중에서)





우의 자료들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극악무도한 세균전만행들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만고죄악을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미국의 세균전만행을 고발한다

편집 김화명
글 최응준, 권지혜
심사 최응준
인쇄 주체104(2015)년 6월 18일
발행 주체104(2015)년 6월 20일
낸곳 평양출판사

ㄱ-1216ㄷ